한국·금호, 유럽 타이어 테스트서 호평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2002년 들어 해외에서 실시된 타이어 테스트에서 잇따라 호평을 얻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트럭용(LTR) 타이어 RA08은 6월 독일 자동차 전문지 프로모빌 주관한 성능 비교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very good) 평가를 받았다.

한국타이어는 미쉐린, 굿이어, 브리지스톤 등 8개 제품을 제치고 최우수 평가를 받아 월 발행부수 100만부에 달하는 프로모빌 6월호에 개재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도 9월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 익스프레스가 미셰린, 굿이어, 브리지스톤 등 세계적 타이어 브랜드 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이어 테스트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15인치 V등급(195/65R 15V) 타이어를 대상으로 실시된 테스트에서 금호의 엑스타 KH11은 빗길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에서 1위를, 빗길 코너링 테스트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종합 점수에서 3위에 올랐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2>